

컴팩트+DSLR+하이브리드 디카 삼국지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동향

2009년부터 컴팩트 디카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일찌감치 카메라업체들의 신규시장을 창출하려는 의지와 새롭고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현재 카메라 시장은 '신기술의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신기술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대표격이 바로 컴팩트 디카와 DSLR의 장점을 고루 갖춘 신개념 렌즈 교환식의 하이브리드 디카이다. 올해 카메라 시장은 하이브리드라는 신규 카테고리의 형성을 통한 컴팩트, DSLR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며 기존의 화소, 줌배율 경쟁에서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 고감도·속도 경쟁 위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취재/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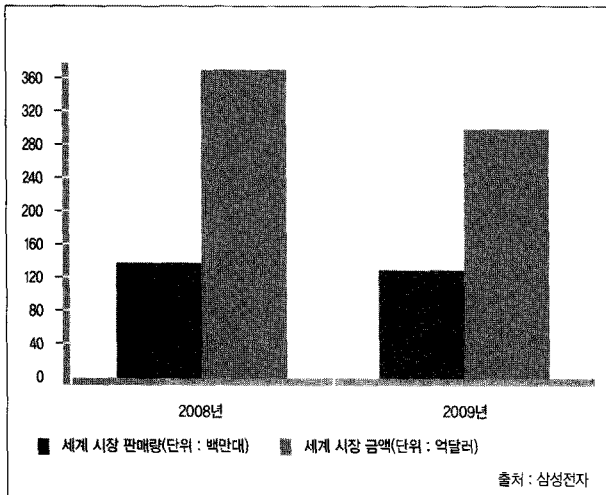
지난 4월15일 올해 9월 독일에서 열리는 포토키나를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독일광학기기협회 크리스티안 뮐러-리커 대표는 "2009년에 전 세계에서 1억 3000만대 정도의 카메라가 팔려나갔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해 7% 감소한 수치이며, 세계 디지털 카메라판매량의 9% 정도가 DSLR"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카메라폰과 캠코더를 포함시킨 영상촬영장치 전 세계에서 27억대가 사용되고 있다"며 "카메라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기술 장난감'으로서 무한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카메라 시장은 고배율 줌의 하이엔드 디

지탈 카메라와 더욱 기능이 보강된 보급형 DSLR 카메라, DSLR 성능에 컴팩트의 휴대성과 사용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카메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특징적인 트렌드로는 촬영중심에서 벗어나 웹2.0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촬영한 이미지를 보다 쉽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존의 화소, 줌배율 경쟁에서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 고감도·속도 경쟁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적 디버전스를 중심으로

광학기술과 모바일, 카메라 하드웨어와 웹 소프트웨어, 카메라와 홈 네트워킹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카메라 문화를 접목한 '멀티 소셜 네트워크 (Multi-Social Network)' 환경 구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림 1〉 전 세계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규모

'하이브리드형' 디카의 고공행진

콤팩트 카메라 시장은 포화상태와 더불어 2009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반면, DSLR 시장은 2003년부터 인기를 끌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의 국내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업체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콤팩트 카메라가 180~200만대, DSLR은 33~35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콤팩트 카메라는 작년보다 5% 정도 감소하는 반면, DSLR은 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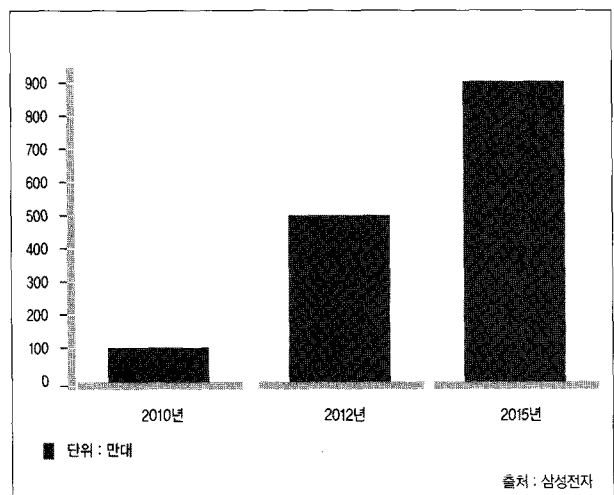
특히 올해 시장의 변수는 다름 아닌 하이브리드 카메라. 내부의 미러박스를 없애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미러리스(Mirrorless)' 또는 '신개념 렌즈 교환식 카메라' 등 업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본 고에서는 '하이브리드'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콤팩트 디카와 DSLR의 장점을 고루 섞은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에는 올림푸스가 작년 7월 'PEN'을 출시하며 첫 테이프를 끊은데 이어 파나소닉이 '루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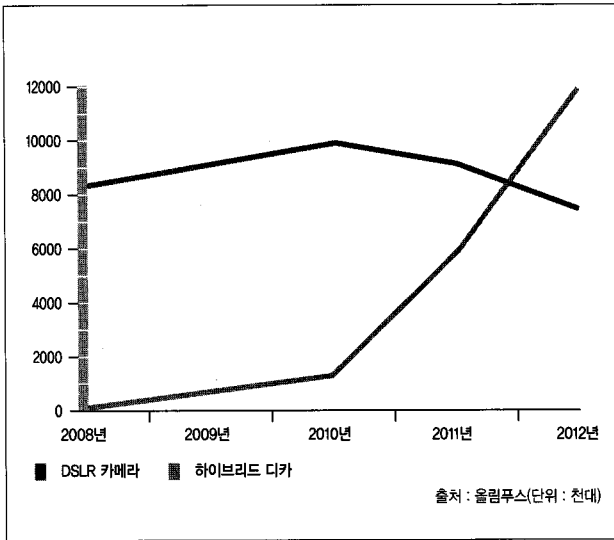
GFI', 'G2'를 출시했고, 삼성이 'NX10'을 선보인데 이어 소니도 하이브리드 시장에 가세할 것이라고 밝혀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선보인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제조사마다 개성이 남다르다.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은 마이크로 포서드를, 삼성과 소니는 APS-C 규격을 쓴다. 두 규격 모두 DSLR에서 쓰는 반사거울을 제거해 본체 크기와 무게를 줄였지만 이미지 센서 크기가 서로 다르다. 마이크로 포서드는 17×13mm이며 APS-C는 24×16mm 이미지 센서 크기를 갖고 있다. 이미지 센서 크기로 보면 APS-C가 더 크며 더 높은 해상도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마이크로 포서드는 이미지 센서 크기가 작은 만큼 휴대성이 더욱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올림푸스측에서는 "자체 조사결과, 올해 카메라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잠재 수요층은 DSLR에서 약8만대, 콤팩트에서 약36만대로 약44만의 잠재 소비자층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며 "신규 브랜드가 유입되고 시장이 성숙되면 5년 후에는 하이브리드 카메라 시장이 DSLR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낙관적인 예측은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 측은 "전 세계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은 100만대에서 2012년 500만대, 오는 2015년에는 9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디카 시장은 2009년 대비 수량측면에서 약 1.5%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약 1백만대(1% 비중)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2〉 전 세계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 규모



(그림3) 전 세계 DSLR 및 하이브리드 카메라 시장 규모

진화하는 디지털 카메라

최근 DSLR 카메라를 살펴보면 캐논과 니콘 등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세분화되고 다양한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급형 DSLR도 화소, 감도 등을 대폭 높이고 보다 향상된 동영상 촬영기능 등을 탑재했으며 상위기종에서만 가능했던 수동 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컴팩트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도 1000만 화소 이상 고화소는 기본이고 광학줌도 3배 이상에 최대 10배까지 내장했으며 하이엔드의 경우 30배까지 장착한 모델도 보인다. 또한 HD는 기본이고 일부 모델의 경우 풀HD동영상까지 지원한다. 그외 HDR이미지 합성 기능, 3D촬영 등 특수한 기능과 함께, 사진을 쉽게 공유하고 관리하며 TV, PC 등 타 전자제품과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듀얼 LCD, 스마트플래쉬, 스마트셔터, 터치스크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 편의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굽힘과 외부 충격, 먼지 등에 강한 아웃도어 디지털 카메라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블루 미러 ST550'을 내놓으며 전면 LCD를 통해 '보면서 찍는다'는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한 삼성은 올해 '블루 미러 2PL150'을 출시했다. 자동 장

면을 인식하는 '스마트 오토' 기능이 있어 뛰어난 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1,240만 고화소에 광학식 5배줌, 3인치 대형 와이드 LCD스크린을 탑재했다.

후지필름에서는 3D카메라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3D 카메라는 렌즈 2개를 따로 달아 입체 사진을 만들어주며 따로 안경을 쓸 필요가 없고 누구나 간편하게 3D로 사물을 촬영할 수 있다. 현재까지 3D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파인픽스 3D W1'이 유일하지만 최근 외신에 따르면 소니도 조만간 3D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푸스의 'SP-800UZ'은 30배 광학줌을 갖춘 하이엔드 디카로 화소수 1,400만을 지원하고 LCD크기는 3인치에 16:9 화면 비율을 지원한다. 후지필름의 'HS10' 역시 30배 광학줌과 풀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니콘의 'P100'은 1,000만 화소에 26배 광학줌을 갖추었고 풀HD 동영상 촬영과 HDR 이미지 합성기능을 지원한다.

캐논의 '익서스 210'은 1,410만 화소에 24mm 광각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디카로 터치만으로 촬영 초점을 맞추는 '터치 오토 포커스' 기능과 '스마트 오토', '스마트 셔터' 기능이 있어 촬영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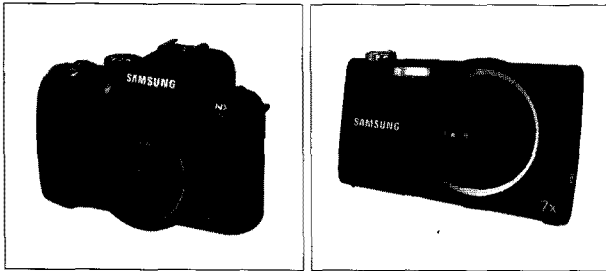
삼성 'ST5500'은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환경 구현에 초점을 맞춰 무선연결 기능을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촬영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다.

아웃도어 기능과 관련하여 삼성에서 새로 선보인 아웃도어기능 카메라인 'WP10'은 3M 방수는 물론 수중촬영 모드를 제공하고 방진 버튼 패드와 굽힘 방지 케이스를 적용했다.

올림푸스의 뮤터프 시리즈 역시 아웃도어 전문 카메라답게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뮤터프 8010'은 수중 10m까지 방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탑재된 HD동영상 기능의 수중촬영 역시 가능하다.

주요 브랜드별 주력 제품 및 2010년 마케팅 전략

‘하이브리드’ 디카 통한 신규 시장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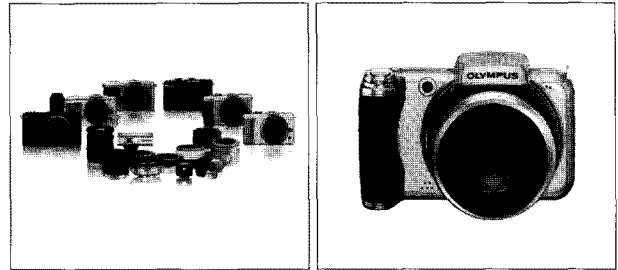


▶ 삼성에서 독자 개발한 신개념 렌즈 교환식 카메라 'NX10'은 1,460만 화소의 대형 APS-C 이미지 센서를 채용, 색감과 화질이 우수하며 고속 AF 스피드를 구현한다.
▶ 1,420만 화소, 31mm 광학 7배줌 슈나이드 렌즈를 채용한 'ST5500'은 Wi-Fi, Bluetooth 2.0, DLNA 등 무선 연결 기능을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촬영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다.

삼성카메라는 올해를 디지털카메라 사업의 일류화를 위한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사용자 중심의 'World's Fiest & Best' 성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디지털이미징 기기의 진화를 주도하고 업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지난 4월1일 기존 삼성디지털이미징과 삼성전자와의 합병에서 기인한다. 삼성카메라 관계자는 “디지털카메라 사업은 콘텐츠를 생성·저장·표현하는 전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콘텐츠 생성의 첫 단계인 만큼 합병을 통해 TV·디지털카메라·캠코더·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제품 간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성으로 고객가치 향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무엇보다 화질·휴대성·사용편의성 등을 고루 갖춘 하이브리드 카메라인 'NX10'으로 신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출시 두 달 만에 국내시장에서 1만대가 팔려나갔을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향후 삼성에서 거는 기대 또한 높다. 또한 'ST5500' 등을 필두로 프리미엄 콤팩트 시장 주도권을 이어나가고, 보급형 듀얼LCD 카메라 2종(PL150, PL100)을 통한 삼성의 'Identity'로 확고히 인식시키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ENia(PEN+Mania)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며 하이브리드 시장 리드
올림푸스한국(주)



▶ 올림푸스의 화제작 하이브리드 카메라 ▶ 1,400만 화소에 세계 최초 30배 광학줌 기능을 가져 DSLR 부럽지 않은 올림푸스의 하이엔드급 디카 'SP-800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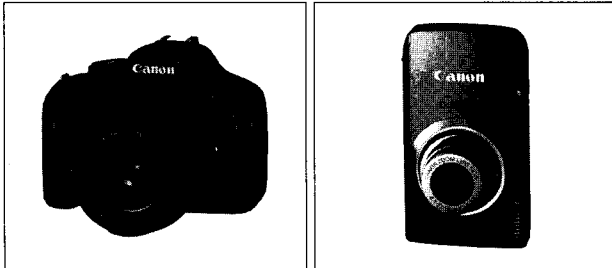
2010년 상반기에 콤팩트 카메라 15종을 출시한 올림푸스는 세계 최초 30배 광학 줌을 채용한 하이엔드급 콤팩트 카메라 'SP800UZ', 가장 튼튼한 내구성과 방수기능을 가진 '뮤터프-8010' 등을 중심으로 올림푸스 콤팩트 카메라 각각의 특징, 기능을 살려 특정 카메라 시리즈가 가진 매력 포인트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강점을 가진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림푸스의 화제작 PEN 시리즈중 'E-PL1' 출시를 통해 PEN 라인업이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성격으로 차별화되면서 진정한 하이브리드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향후 전용 렌즈와 액세서리 군을 강화하고 소비자들 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카메라 문화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이미 자생적으로 형성된 PENia(PEN+Mania) (페니아(PENia)란 PEN과 Mania(마니아)의 합성어)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올림푸스 고객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PEN 사용자들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파티, 출사, 이벤트, 포럼 등 페니아들만의 프리미엄급 문화형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사진 입문자에서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타깃 마케팅' 전략 추진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 1,800만 화소에 풀HD급부터 SD급까지 지원하며 ISO감도를 100-6400(확장시 12800)로 대폭 높여 중급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탑재한 캐논의 엔트리급 DSLR 'EOS 550D'
▶ 캐논의 '익서스 210'은 1,410만 화소에 24mm 광각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콤팩트 디카이다.

캐논은 작년 12월 말 전문가용 플래그십 DSLR 카메라인 'EOS-1D Mark IV'를 출시하고, 올 2월에는 DSLR 카메라 'EOS 550D'와 콤팩트 카메라 6종을, 4월에는 캠코더 신제품 6종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지난 해 말부터 타깃별 다양한 신제품들을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캐논은 그동안 축적된 광학 기술과 카메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DSLR 카메라에 입문하는 초급 유저부터 사진기자, 사진작가 등의 전문가까지 전 사용자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타깃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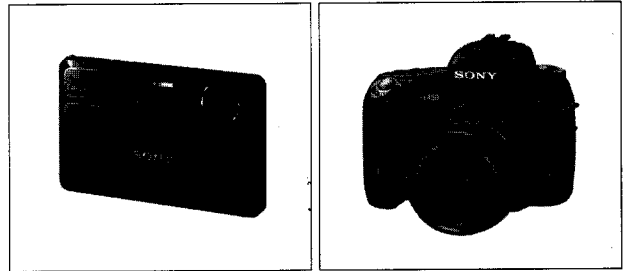
콤팩트 카메라는 제품의 특징점인 휴대성과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DSLR 카메라 못지않은 기능으로 고급 사용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술적 진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익서스와 파워샷 두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광각, 고배율 줌, 터치스크린 등 소구하는 기능이나 특징점을 살린 다양한 하위 제품군을 출시해 나가며, DSLR 카메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미 요소를 탑재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점점 커져가는 영상촬영 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캠코더 제품에도 좀 더 집중해 DSLR 카메라와 같이 수준별, 성능별로 세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체험 기회를 넓히는 등 관련 타

깃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테마의 출사 행사를 진행하고, 개관 1주년을 맞이한 캐논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캐논 플래क्स'를 통해 신속한 A/S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제품 체험 및 사진 작품 전시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SLR 재도약의 원년, 하이브리드 카메라 통해 더 큰 성장 예상
소니코리아(주)



▶ 콤팩트 카메라에서는 최초로 1920×1080의 Full HD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소니의 DSC-TX7.
▶ 소니의 보급형 DSLR인 알파450은 1,420만 화소 '엑스모어(Exmor) CMOS' 센서, HDR 기능 등을 장착했다.

소니는 지난해 알파의 첫 플래그십 모델인 '알파900'을 출시한 이래, 보급형 풀 프레임 DSLR카메라인 '알파850', 준중급형 DSLR카메라인 '알파550'과 '알파500'까지 연달아 선보이면서 DSLR 시장에 진출한지 불과 4년 만에 DSLR의 모든 라인업을 완성했다.

올해 미국에서 열린 PMA에서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선보이며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소니 알파 울트라 콤팩트(Alpha Ultra-compact)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모델군은 마이크로 포서드와는 달리 APS HD CMOS를 채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월2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P&I 2010'에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소니 관계자는 "올해를 알파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렌즈 교환식 콤팩트 카메라를 비롯한 혁신 제품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